

東南亞 各國의 建築團體를 巡訪하고〔I〕

金 枝 泰 — 서울特別市支部 支部長

다음은 東南亞 各國 建築士界와의 友대관계를 맺고 技術 및 情報交換과 아울러 國際 進선교류를 모색하기 위해 지난 2월 6個國을 돌아보고 귀국한 會長團의 巡訪記를 옮긴 것이다.

우리는 매일같이 업무에 쫓기고 雜務에 시달리다 보면 챙겨야 할 일들을 까맣게 잊어 버리고 지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 주변의 변모해 가는 환경을 비롯해 모든 것들이 점차로 多樣化되어 가고, 國際化의 물결이 거세게 밀어 닥치는 이 時点에서 우리 建築士들도 時代潮流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널리 海外에 눈길을 돌려 世界 속의 韓國을 다시보고 韓國의 立場을 생각함으로써 챙겨야 할 일들이 어떤 것인가를 理解하게 되리라 본다. 즉 우물안 개구리격과 같은 처지를 벗어나 넓은 시야를 갖도록 노력함으로써 水準 向上의 거리를 좁힐 수 있다고 생각된다.

법에 의한 지난 1965년에 大韓建築士協會라는 하나의 技術團體로 創設된 이래 어언간 17년을 헤아리는 年輪 속에서 會員만도 2천여명을 포용한 規模있는 團體로서 꾸준히 성장발전해 왔으나, 그 外樣에 비해 內面的인 精神年齡은 뒤따르지 못한 점이 없지 않은 것이 協會實情이 아닐까 한다.

따라서 앞으로 協會의 體質改善과 活性化에 따른 進路方向뿐만 아니라 發展을 위한 里程標를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도 때늦은 감이 있지만 國際交流에 대한 문제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時点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次元에서 具會長과 筆者는 海外交流에 대한 計劃을 모색하고 있던 터에 泰國과 台灣建築師公會의 초청도 있고 해서 此際에 交流를 위한 첫 걸음으로 友邦인 東南亞各國(TAIWAN, HONG KONG, PHILIPPINE, SINGAPORE, THAILAND, JAPAN 등 6개국)의 건축단체를 순방하기로 결정했다.

협회 임원으로서의 첫 나들이인 우리로서는 순방에 앞서 國際的으로 交流가 별로 없는 협회의 형편이기 때문에 尋訪國의 건축단체와 會晤를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과 儀典上의 要式節次도 알아 봐 줄 것을 各국 주재 우리 대사관을 통해 미리 협조를 구했다.

출발 10여일 전에 이런 준비 등을 하고 필요한 公文도 띄웠다. 순방할 나라에 따라 1박 2일 또는 2박 3일 씩의 빡빡한 日程으로 모두 15일간 여행 계획을 정하고 協會에서 贈呈하는 公式的인 膳物(李朝繪畫集, 족자, 각종책자, 訪問牌, 케넛트 등)만을 제외하고는 各自 부담이라는 精神下에서 民間外交와 다를 바 없는 使命感마저 갖고 가벼운 마음으로 旅程에 올랐다.

■ 自由中國 / 台北

우리 一行은 旅行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협회 임직원들과 親知들의 배웅을 받으며 2월 5일 오후 5시30분 CX 411便(CATHAY PACIFIC)으로 출발했다.

비행기에 몸을 실은지 약 2시간 30분만에 靑島같은 어둠속에서 첫 방문국

인 自由中國의 首都인 台北市 西北쪽에 위치한 中正國際飛行場(CHIANG KAI-SHEK INTERNATIONAL AIRPORT)에 도착했다.

불과 몇시간 전만 해도 겨울 코트를 입었던 필자 자신이 南國의 熱風에 몸을 맡기니 地球緯度의 차이점을 새삼 實感케 했다. 空港로비에서 알게된 호텔 안내인과 함께 車를 타고 市内를 向해 靑히 霧린 고속도로를 달렸다.

일정한 간격으로 서있는 가로등 불빛 밑에 常夏의 植物들이 밤바람에 춤을 추듯 흔들리는 것이 더 한층 南國의 정취를 자아 내게 했다. 30여분을 달리던 차는 휘황찬란한 네온사인인 명멸하는 市内中人거리에 위치한 호텔 앞에서 우리를 내려주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갔다.

異國에서의 첫날밤을 맞이한 우리는 여장을 풀고 旅路에서만 맛 볼 수 있는 약간의 흥분과 피로를 풀기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온누리에 퍼지고 現代的 造形美를 갖춘 最新 建物들이 즐비하게 치솟은, 혼탁한듯 하면서도 질서정연하게 躍동하는 市内의 모습을 車窓으로 바라보며 우리나라 大使館으로 向했다.

예정된 시간에 독특한 건물형태를 지닌 大使館을 찾은 우리는 대사님을 비롯한 外交官들의 성의있는 推薦으로 台灣建築師公會 任員들과 만날 수 있었다. 대사관에서는 우리가 출발전에 보낸 公文을 받아 봐서 방문계획을 알 수 는 있었으나 혹시 예정시간이 변경되어 우리 일행이 오지 않

면 난처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했다고 우리 일행을 환영해줬다. 이는 國家的인次元에서 볼 때 各分野別로 미치지 못하는 外交面에서 우리의 巡訪行事は 일종의 民間外交 役割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처럼 적극적인 協助를 아끼지 않았던 것이라고 풀이 된다.

台灣建築師公會에서는 마침 週末인데도 不拘하고 우리 일행을 맞이 하기 위해 다른 일을 제쳐놓고 최선을 다해 줬다. 약속된 오후 4시에 대사관에서 통역(中國語)으로 추천한 姜氏(우리나라 화교, 단국대졸업)의 案内로 台北市 長安末路一段에 있는 台北市建築師公會會館을 訪問했다.

건축관계인사 10여명의 따뜻한 영접을 받으며 設計도서등록과를 통과해서 안내된 곳은 넓직한 會議室이었다. 곧이어 儀禮的인 쌍방의 入事紹介와 記念페넌트 교환을 하고 兩國의 共同관심사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會合에 들어갔다.

이자리에는 台北市 政府工務局副局長이며 中華民國 建築學會理事長(會長)인 黃南淵씨를 비롯해 台北市 政府工務局 都市計劃處長인 林將財씨, 台灣建築師로서 矚目的인 人物인 高而潘 台北市建築師公會 理事長, 그리고 許坤南 台灣省建築師公會 理事長, 朱祖明 台北淡江大學建築科教授 이외에 建築師公會任員인 PROF; YUFN-C HEN YU, 候西泉, 謝國禎 및 事務局長 등이 참석했다.

台灣側의 高理事長의 정중하고도 友誼에 찬 환영인사에 이어 具瓊會회장은 歷史的으로도 유대가 깊은 양국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또한 이번 尋訪에 이처럼 정중하고도 따뜻하게 환영해준데 대한 答禮를 한다음 본격적인 의견교환을 시작했다.

이번 巡訪目的은 各國의 共通事項이 되겠지만 앞으로의 交流를 위해서 첫째로 교섭團體의 確認과 그 實態 파악, 둘째, 交流를 통해 언어야 할 資料蒐集 즉 ① 건축사 資格取得課程과 그 內容 ② 건축관계 許可制度에 관한 것 ③ 건축관계 法令 ④ 건축관계의 教育制度 등이다. 세계는 交流를 통해 建築文化창달을 위한 技術情報 및 資料交換, 圖書出版物의 交換, 共同으로 技術開發調查研究, 그리고 앞으로 時期가 성숙해 지면 定期的인

親善訪問 또는 國際機構加入 문제 등이 協議된 內容이었다.

現在의 中華民國(自由中國)의 建築師公會組織은 日本의 建築士聯合會와 유사한 조직체계를 갖고 있으며 社團法人체로서 總本部인 中華民國建築師公會 全國聯合會산하에 台灣건축사공회가 있고 우리나라의 各市道支部格인 台北市건축사공회가 있다.

建築師의 級別은 없어졌으나 過去에 받은 2級건축사는 30여명 정도 남아 있고, 台北市에 등록된 건축사는 7백여명이다. 특이한 것은 건축직 公務員을 제외하고는 면허를 取得한 건축사는 대학교수라도 事務所를 開設할 수 있는 制度이다.

資格取得 과정은 大學을 졸업한 후 5年間의 實務경력을 쌓은 뒤에 시험에 합격해야 가능하다.

이번에 돌아 본 6개국에서 資格시험을 치루는 나라는 日本, 台灣, 香港과 우리나라 뿐이고 다른 나라는 大學을 졸업한 뒤 일정기간의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이 건축사가 되려면 官民合同으로 構成된 자격심의위원회(高位職建築公務員, 建築係大學 교수, 건축사와 기타 관계 인사 등)의 심의를 거쳐 자격을 인정받아야만 事務所를 開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건축사로서의 能力을 인정받지 못하면 建築의 創作活動은 할 수 없다는 制度이다. 어떤 制度가 건축사의 品位保全과 社會的地位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만한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2 시간 남짓한 會議에서 公式用語는 中國語였으나 參席者의 반수 이상이 日本語와 英語를 自由롭게 구사하므로 서로간의 意思 소통에 불편을 느끼지 않았다.

會議를 끝낼 무렵 많은 관계자들과 圖書를 기증받고, 우리가 가지고 온 선물은 追後에 大使館을 통해 증정하기로 양해를 구하고, 앞으로의 交流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期約하면서 참석인사들과 記念촬영을 끝으로 和氣와 友誼가 넘쳐 흐른 會談을 마쳤다.

이어서 우리는 建築師公會가 마련한 만찬 장소인 一流요리점 “怡園”으로 자리를 옮기기 위해 會館을 떠났다.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한 正式北

京料理를 즐기며 환담을 나누고, 응송한 대접에 대한 謝意를 표한 후 아쉬움을 남긴채 밤 9시에 그들과 헤어졌다.

그들과의 會合은 기대 이상으로 좋은 成果를 거둘 수 있었으나,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준비한 선물들이 제때에 도착이 되어있지않아 차후에 大使館을 통해 전달하겠다는 말로 대신해야 했던 웃지못할 缺禮가 있었다 이런 사례는 홍콩과 싱가포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4개국에서 모두 말(言)로 선물을 대신 해야 했으니……. / 출발 7, 8일 전에 託送한 것이 제때에 도착하지 않아 결국 그후에 전달해줄 것을 부탁해 놓아서 모두 전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

다음날은 公休日로서 公式的인 스케줄을 끝낸 우리는 觀光이 主目的은 아니지만 남은 時間을 선용하기 위해 台北의 몇몇 名所를 찾기로 했다.

2次大戰後에 國共合作이 失敗로 돌아가자 1949年 恨스럽게도 中國本土에서 日本의 九州섬보다 약간 작은 고구마 모양의 대만섬으로 옮겨온 후 萬難을 극복하고 오늘과 같은 經濟富國을 이룩한 自由中國을 만든 것이다.

「處驚不變」이란 말은 대만의 自由中國을 부흥하는데 널리 使用된 口號라 하겠다. 統治의 象徵建物로 손색이 없는 붉은 벽돌색의 政府廳舍인 總統府와 푸른 樹木이 우거진 넓은 廣場을 돌아 보았다.



□ 대만 총통부 청사 앞에서의 일행

이 곳에서 바라다 보이는 곳에 우뚝 솟아 있는 中正記念堂(CH-ANG KAI-SHEK MEMORIAL HALL)을 찾아갔다. 中國固有의 傳統建築美를 加味한 이 記念堂의 외벽은 基壇에서부터 높은 지붕 추녀 밑까지 靑옥색의 大理石으로 治裝했으며 지붕은 靑기와를 씌웠다. 주변 광장에는 한복의 그림처럼 붉은 꽃밭으로 調和있게 配列한 것이 눈에 띈다.



□ 中正記念堂앞에서

堂内部 홀로 들어가니 蔣總統의 座像을 가운데에 두고 그 양쪽에 인형처럼 서있는 正裝한 군인——儀仗兵이 펴 인상적이었다. 특히 座像은 미국 와싱턴의 링컨大統領 기념관의 링컨座像과 유사하게 만들어져 있었다.



□ 台北市內에 있는 孔子廟앞에서의 필자

설명에 따르면 그의 屍身도 堂内部地下層에 안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공개된 지하층 내부는 蔣總統의 遺品展示를 위한 공간으로 할당되어 있었다. TOUR COURSE에 들어 있는 孔子廟에 들어가 보니 용마루 양쪽 끝이 하늘을 향하여 뾰족하게 치솟은 형식과 중국의 傳統樣式의 木造建築美를 뒷받침하는 강렬한 色調가 이곳이 중국임을 강조해 주고도 남음이 있었다.

儀仗兵이 警備하고 있는 전물용사들을 봉안한 忠烈祠 정문 앞에서 우리 일행은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넓은 뜰 동편에 중국의 고유양식의 祠堂建물이었다. 향을 피워 명복을 비는 참배인의 모습에서 우리나라 국군 묘지를 연상케 했다.

오전 11시경, 우리의 TOUR BUS는 台北市城中區에 위치하여 그 내용과 규모를 자랑하는 國立歷史博物館(一名: 故宮博物館) 앞뜰에 도착하였다. 중국의 5천년 역사를 한눈에 관람할 수 있도록 진열한 유품 수만도 국보급이 12,000점에 이른다고 한다. 입장하여 평소에 걷는 템포로 관람하는데 약 1시간 이상이 소요되었다. (자세히 관람하려면 2시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한다.)

蔣總統이 정부를 대만으로 옮겨올 때에 신명을 다하여 이 국보급의 유물들을 무사히 운반하여 보존케 한 것은 널리 알려진 逸話이다. 박물관의 전시에 있어 관람자의 편의와 動線처리엔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당한 연구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었다. 간단한 점심을 마치고 오후에는 台北市內에서 27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우라이(鳥來)라는 곳(대만의 원주민이 살고 있는 高砂族의 村落)을 향해 출발하였다. 대만의 관광자원의 하나인 이 高砂族의 風俗을 일반 관광객에게 공개하고 있었다.

高砂族의 체구는 왜소한 편이고 피부색은 약간 검은 편이나 여성들은 그렇지 않았다. 용모에서도 눈언저리가 약간 들어간 것이 특징이랄까, 별로 우리들과 다른 바가 없었다. 산악지대의 울창한 숲속에 마을을 이루고 있는 高砂族들은 관광객을 환영한다는 뜻에서 그들 고유의 무용을 보여주고 관람료를 받고 있는 것이 이체

로왔다. 대만은 지형적인 혜택으로 광대한 原始林과 매력적인 관광지로써 많은 외국인에게 무한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족한 나라였다.

이곳에서 숙소인 호텔로 돌아온 것이 오후 6시가 조금 넘어서였다. 저녁노을로 곱게 물들인 市內商街建물이 들어서 있는 골목을 거닐다 보니, 大陸의인 색채로 그 모습들은 달라보이긴 하지만 뒷골목이나 식당거리에는 아직도 日本色의 잔재가 물씬 풍기고 있었다.

짧은 2일간의 대만(FORMOSA—常綠이라는 뜻) 체류에서 見聞한 것들은 走馬看山格이고 단편적이긴 하지만 필자의 뇌리 속에서 떼어낼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香港에서——2일간의 대만 방문을 마치고 푸른 바다물결만이 출렁거리는 南支那海를 날고 있던 CX511便機는 마침내 香港의 九龍半島의 租借地에 위치한 啓德國際空港(KAITAK INTERNATIONAL AIRPORT)에 우리 일행을 풀어 놓았다. 그 시각이 2월 8일 오후 2시 30분이었다. 대만에서 약 1시간 40분의 비행시간이 된다. 알다시피 香港은 유럽이나 아메리카로부터 동양에 이르는 海空路의 要地이며 국제적으로도 특수한 地位를 점하고 있는 도시이다.

세 계적인 美港에 든다는 香港의 첫 인상은 든든 그대요, 중국에 위치하면서도 중국이 아닌 西歐化된 國際貿易都市임을 강렬하게 받았다. 공항에서 약 8km 떨어진 九龍市內에 소재한 그랜드 호텔에 짐을 풀고 곧바로 대사관에 연락을 취했다. HOTEL OPERATOR에게 한국대사관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었더니 HONG KONG SIDE냐고 되물어 새삼 어리둥절하고 말았다.

홍콩하면, 九龍半島와 香港島를 포함하여 호칭하는데 전화에 있어서는 구분하여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촌놈이 따로 있는게 아니로구나, 바로 우리가 국제적인 촌놈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쓴웃음이 절로 나왔다.

대사관의 許領事任께서는,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香港 建築師團체와의 연락 및 교섭이

미진하니 아무래도 홍콩에서 한국인으로서 오직 한분이며 건축 창작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한국 건축가협회 회원인 申鉉尙씨를 소개할 터이니 그분의 협조를 얻어 순방목적 달성을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일 것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오후 7시에 HONG KONG ISLAND 중심가에 있는 LEE GARDENS HOTEL 2층의 〈거주장〉이라는 한식집에서 許領事를 비롯하여 申씨와 우리 일행은 회식을 같이 하면서 내일에 있을 그곳 建築師 團體와의 尋訪件에 대한 협의의 끝내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申씨의 안내로 그의 사무실에 들러 홍콩 건축사들의 활동상을 들었다.

申씨의 사무실은 25평 정도의 아파트를 건축가의 사무실로 개조한 것이었다. 건축가가 일하는 방담게 오밀조밀하면서도 차분한 분위기를 자아내게 하는 실내의 공간처리와 건물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 점, 그리고 방문객과 업무를 위한 동선에 따른 방배치의 솜씨에서 申씨를 이해하기가 한결 쉬웠다.

다음날 申씨의 수고로 香港 建築師 學會會長이며 亞州 建築師 學會 主席로 있는 潘租堯(Mr. POON)씨와의 상면 약속이 이루어져 그의 사무실에 도착한 것이 오전 11시였다. Mr. POON은 면담하기에 앞서 우리에게 양해를 구해왔다. 그것은 우리 쪽의 순방에 따른 공식적인 교섭이 잘 되지 않은 것과 兩國이 團體間의 正式交流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공식적인 회합은 차후로 밀고 다만 모처럼의 尋訪目的을 위해 우선 개인 자격으로 국한한다는 뜻을 밝혀 그렇게 하기로 합의한 다음 그를 만나러 갔다.

이러한 경우 불쾌하게 생각하기 쉬우나 오히려 우리 쪽의 미흡함을 인식케 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國家間의 團體交流에 있어 사전에 교섭을 통한 절차없이 공식會議를 갖기 힘들다는 것을 일깨워준 것이라 하겠다.

아담하게 꾸며진 그의 사무실로 안내된 우리 일행은 美男型으로 생긴 童眞의 중년신사인 Mr. POON의 따뜻한 영접을 받고 서로 인사소개를 한 후, 尋訪메시지와 가져간 선물을 증

정하자 무척 고마와했다. Mr. POON에 대하여는 申씨에게서 들었던 바와 같이 중후하면서도 매사에 활동적일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폭넓은 활약을 하고도 남을만한 능력의 소유자임을 그의 인품에서 엿볼 수 있었다.

벽에 걸린 액자 속의 英聯邦 建築師 學會 行政顧問委員會 會員證이 유난히도 눈에 띄었다. 이는 Mr. POON의 사회적 활약상의 일면을 과시하는 듯했다. 서로의 관심사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이야기가 끝난 것은 오후 12시 30분경이었다. 마침 점심시간이었으므로 식사초대를 했더니 Mr. POON 자신의 사정이 있어 함께 못함을 매우 죄송스럽게 여긴다면서, 앞으로 양국단체의 교류에 있어서는 적극 협조하겠다는 것과 다시 만나기를 희망하며 석별의 인사를 나눔으로써 그곳에서의 巡訪旅程의 막은 내린 것이다.

그와의 대화 내용에서 香港의 建築 團體는 建築師 學會와 UIA 會員國으로서의 家協會만이 있다는 걸 알았다. 따라서 우리 協會와의 교류는 香港 建築師 學會가 될 것 같다.

이밖에 주목할 것은 2년 전에 창설했다는 亞州 建築師 學會 (ARCHITECTS REGIONAL COUNCIL ASIA)인 것이다. 회원국은 홍콩을 비롯하여 방글라데시·인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파키스탄·필리핀·싱가폴·태국·스리랑카 등, 주로 동남아에 속하는 1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기구를 주관하는 사무국

은 홍콩에 두고 있다. 이 A.R.C.A의 設立目的은 建築文化 발전을 기하기 위한 각국의 建築 團體와의 친목과 유대를 갖고 각종 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총회는 해마다 각국 순번으로 개최하며, 1981년도 총회는 9월에 홍콩에서 성대하게 가졌다고 한다. 우리 협회도 가입하지 않겠느냐는 권유를 받은 바 있으나 이 문제는 協會公式 機構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가입 여부를 알려 주겠다고 했다. 사실 그러한 사항은 우리의 순방목적 중에서 국제교류의 실정을 알기 위한 정보이기도 했다.

홍콩의 建築師들은 우리 형편과는 판이할 정도로 사회적 지위가 확고한 것 같았다. 그 실례로서, 작년에 中國系의 미국인으로 유명한 건축가 아이엠 페이가 홍콩을 방문했는데 그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는 뜻에서 대대적인 환영은 물론 VIP로서의 최상의 예우뿐 아니라 그의 신변의 안전에 대한 경호에 최선을 다했다는 말을 듣고 볼 때, 홍콩 건축사들의 득의만만한 作品活動이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밖에 建築學徒를 교육시키는 대학은 홍콩政府에서 주관하는 西歐式的 香港大學뿐이므로 입학하는데도 하늘의 별따기보다 더 힘든 반면, 이 대학을 졸업한 건축학도의 장래는 사회적 배경에 힘입어 건축사로서 굳건한 기반을 다져가고 있음을



□ 홍콩市民회에서 吳玠會會長과 申鉉尙씨

알 수 있었다.

半日 밖에 남지않은 오후의 여가를 이용하기 위해 우리 일행은 申씨와 함께 市内 TOUR로 들어갔다. 동양의 진주라 불리는 圓錐型的의 홍콩섬은 동서로 길며 平地다운 평지가 적은 편이다. 섬의 최고봉은 標高 604m로서 PEAK라 부르며, 이 PEAK의 斜面은 계단식 또는 RAMP WAY처럼 형성되어 있어 발붙일만한 곳은 전부 건물들이 들어차 있었다.

超모던한 高層建物이 있는가 하면 전통적인 PAGODA나 성벽에 둘러싸인 예전 그대로의 건물도 볼 수 있는 홍콩 특유의 도시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市民홀의 展示場에서는 매 마칩 BAUHAUS의 창설자인 WALTER GROPIUS 작품 전시회가 개최되고 있었다. 이홀은 시민을 위한 집회와 전시장으로만 이용토록 한 건물인데 그 스케일이 크지도 적지도 않은 알맞은 규모의 것이었다.

시민 전시장을 빠져 나오면서 우리 일행은 大公便所(공원 관리상)가 따로 있다는 VICTORIA PEAK로 향했다. 홍콩섬의 최정상에서 내려다본 香港市와 KOWLOON반도의 전경은 일대 장관이 아닐 수 없었다. 높고 낮은 건물 사이로 보이는 검푸른 바다, 그 속에서 꿈꾸듯 조용히 정박하고 있는 무수한 선박들, 개미떼처럼 몰려 다니는 많은 차량의 무리, 그리고 斜面을 최대한도로 이용하여 형성된 圓型的의 무한한 변화 속의 曲線道路는 울창한 나무숲 사이를 누비며 아래 쪽으로 퍼져 내려가고 있었다. 참으로 홍콩이 아니면 맞볼 수 없는 절경이었다. 홍콩의 명물인 海底터널(길이 1.5km)을 통과할 때에는, 바로 위에서 분주히 왕래하고 있을 선박들을 생각하며 인류의 과학문명의 극치를 보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굴 속을 질풍같이 달리던 택시는 九龍市内的 숙소 앞에 우리 일행을

떨구어 놓고는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다. 저녁식사를 끝내고 숙소 주변의 상가와 밤거리의 모습을 스냅하기 위해 우리 일행은 인파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밤의 활기를 불러 일으키는 온갖 네온과 조명의 엇갈림은 흥분과 자극의 교향곡이 되어 온 거리를 뒤 흔들고 있었다. 약 2시간 가량 밤거리의 TOUR를 끝낸 우리 일행은 깊어가는 홍콩의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내일의 출발 준비를 위해 호텔로 돌아왔다.

1841년, 아편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국이 中國清朝로부터 얻어낸 땅이 홍콩인 것이다. 産業都市로서, 國際貿易都市로서, 또한 觀光都市로서의 풍모를 지닌 이 홍콩은 어떤 미스터리와 같은 것을 지니고 있음과 동시에 무한한 可能性을 보여주고 있는 나라라고 여겨진다. <※>

모차르트의 작곡은 설계이다.
그것은 질서의 실행이다— 직관적
디자이너는 그 이상의 디자인을 鼓舞한다.
디자이너는 表象을 질서에서 얻어온다.
표상이란 기억이다— 형태
樣式이란 하나의 적용된 질서이다.
동일한 질서가 코끼리를 만들었고
인간을 창조했다.
그것들은 다른 디자인이다.
다른 열망에서 시작되어 다른 상황
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질서는 미를 암시하지 않는다.
같은 질서가 난쟁이와 아도니스를 만들었다.
디자이너는 美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美는 선택에 의해서 생겨난다.
親和力과
完全化와
사랑에 의해서
예술은, 질서속에서 하나의 형태·
만들기이다— 영혼의
질서란 만들 수 없는 것이다.

秩序(order)란... / 루이스 I. 칸
(Louis I. Kahn)

